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국내 최초 '나프로임신법' 200번째 아기 탄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가 최근 '나프로임신법(NaPro Technology)'을 통해 통산 200번째 출산을 기록하며 국내 난임 치료 분야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센터 문을 연 이후 자연 임신은 목표로 꾸준히 걸어온 결실이다.

“왜 안 되는가” 대신 “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번 200번째 출산의 주인공은 결혼 5년 차 정경문·윤다래 부부로 지난 2월 4일, 3.38kg의 건강한 여아를 품에 안았다. 반복되는 생리불순으로 약 1년간 난임을 겪었던 부부의 치료는 흔한 시술이 아닌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과정'부터 시작됐다.

나프로임신법은 여성의 질 분비물 변화를 기록하는 '크라이튼 모델 시스템(Creighton Model System)'을 기반으로 한다. 의료진은 차트 교육을 통해 부부의 생리 주기를 분석했고,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배란부전이라는 난임 원인을 찾아냈다. 이후 개인 주기에 맞춘 호르몬 치료가 진행됐고, 자신의 가임 시기를 정확히 이해한 부부는 4주기 만에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

'치료 대상' 아닌 '회복의 과정'... 누적 임신 성공률 27.7%

나프로(NaPro)는 Natural(자연적인), Procreative(출산의),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배아 이식 중심의 보조생식술과 달리, 임신을 돕기 전 여성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생리 주기 기록으로 이상 신호를 발견하고 호르몬 치료, 배란 관리, 필요 시 외과적 수술까지 시행해 가임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센터가 축적한 데이터는 이 철학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2016년 국내 최초 나프로 임신법 도입 이후 4차 교육을 완료한 1,030쌍 가운데 286쌍이 임신에 성공해 누적 임신 성공률 27.7%를 기록했다. 배란기를 정확히 확인한 뒤 1~2주기 내에 임신한 사례도 있었으며, 전체 임신 사례의 11%는 진단적 복강경이나 근종·내막종 수술 치료 후 임신으로 이어져 근본 원인 해결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전인적 난임 케어로 '생명 존중 의료' 확산

여의도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는 단순한 의학적 개입을 넘어 난임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좌절, 부부 관계의 스트레스까지 돌보는 심리 상담을 병행해 '전인적 난임 치료 모델'을 운영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25년 11월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에 나프로임신센터를 확대 개소했다.

길기철 나프로임신센터장(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200번째 아기 탄생은 자연 임신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의 확실한 증거”라며 “여성의 생리적 건강을 존중하는 치료를 통해 앞으로도 생명 존중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경문·윤다래 부부와 자녀

전인치유의 반석을 세운 성모병원 초대 원장 박병래

1936년 개원한 성모병원 전경



성모병원 초대 원장 박병래

1936년 5월 11일, 경성부 영락정 1정목 39번지, 24개의 입원 병상과 외래 진료실 하나로 문을 연 소박한 2층 건물 앞에, 흰 가운 차림의 의사 한 명이 섰습니다. 경성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에서 근무했던 내과 전문의이자 성모병원 초대 원장 박병래 선생(오십, 1903~1974)이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병원의 뿌리는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성교구 청년연합회는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1931)을 기념하기 위해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신자가 정성을 모았고, 1935년 3월 일본인이 경영하던 무라카미 병원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새 병원에는 박병래 선생이 제안한 '성모(聖母)'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성모병원이 "경성 시내 우수한 병원 중의 하나"이며, "다른 여러 병원을 제쳐놓고 찾아드는 환자가 대부분"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실력과 신망을 겸비한 박병래 선생의 고유한 진료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선생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선생은 한국 최고의 병원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출신이었고, 그러하기에 감염병이 돌면 언론은 앞다투어 선생을 찾아 대책을 물었습니다. 선생의 탁월함은 훗날 개원의 신분으로 대한내과학회 회장(1962)과 대한결핵학회 회장(1963)을 역임한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물론 훌륭한 실력이 박병래 선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선생에게 병원은 몸의 통증을 치료하는 곳인 동시에, 마음과 사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성모병원에 앞서 샬트르성바오루수녀회가 운영하던 시약소가 무료 진료소로 편입되고, 시약소 운영을 맡던 아홉 명의 수녀가 성모병원의 간호사로 들어온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모병원은 경성을 대표하는 전인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박병래 선생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모병원을 이끌었습니다. 조국은 빛을 찾았지만, 선생은 외려 더 바빴습니다. 일본인 의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인력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선생은 시간을 쪼개어 무료 진료소를 확장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동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공군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군의감으로서 군진료를 지휘하는 동시에, '천주교 의료 봉사단'을 꾸려 전국을 누볐습니다.

전후 박병래 선생은 1956년, 성모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원장(제3대)을 맡는 동시에 성신대학 의학부의 부장(오늘날의 학장)에 취임하여, 의학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자원도 인력도 부족한 어려운 시절이지만, 전인치유를 향한 선생의 뜻은 무엇도 꺾지 못했습니다.

이후 선생은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고 성루카병원(1957)을 개원했습니다. 경영의 부담 없이 다시 환자에게 오롯이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는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입단한 것도 이즈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74년, 선생은 임종을 앞두고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전인치유와 청빈,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자 숙제입니다.



성필수 교수팀, CD38 항체 치료 환자 맞춤형 예방전략 제시

다발성골수종 면역항암치료 후 B형간염 재활성화, 고위험군 선별 기준 첫 규명



성필수 교수, 탁권용 임상강사(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성필수 교수팀(제1저자 탁권용 임상강사)은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혈액암 환자에서의 B형간염 바이러스(HBV) 재활성화 발생률과 위험도 층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동일한 anti-CD38 치료를 받더라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고위험 하위군이 존재함을 규명했다.

B형간염은 전 세계 약 2억 5,700만 명의 감염자를 보유한 주요 감염병으로, 매년 110만 명이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또한 과거에 B형간염을 앓았던 이력이 있는 '과거 감염자'의 경우, 면역억제 치료 환경에서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

성될 수 있고, 이는 급성 간염, 간부전 등으로 이어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중증 간염이 발생한 환자의 약 20~30%에서 간 관련 사망이 보고된다.

현재 다발성골수종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anti-CD38 항체 치료는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만, 면역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바이러스 방어 기전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간 명확한 발생률 데이터가 부족해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괄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회색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anti-CD38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과거 B형간염 노출 이력이 있는 180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다. 전체 환자의 재활성화 발생률은 7.8%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간학회 기준상 예방적 치료를 일괄 권고하지 않는 '중등도 위험군(1~10%)' 범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구팀이 다변량 분석을 통해 세부 하위군을 층화한 자 환자별 위험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분석

결과, 기저 B형간염 방어 항체(anti-HBs) 수치가 100 IU/L 미만이면서 재발 또는 불응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한 '고위험 하위군'의 경우, 24개월 누적 재활성화 발생률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방어 항체가 충분하고 1차 치료 단계에서 약제를 투여받은 저위험군에서는 재활성화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발생률만 놓고 보았을 때 간과될 수 있는 실질적 고위험군이 기존 분류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도 입증됐다. 예방 치료를 시행한 14명 중에서는 재활성화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증 간염과 간 관련 사망 역시 예방 미시행군에서만 발생했다. 중증 간염은 고위험군에 집중됐고, 간 관련 사망자는 모두 고위험군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군 선별과 예방 치료가 치명적 결과를 막을 수 있음을 보였다.

최근 개정된 '유럽 간질환 관리 가이드라인' 중 'B형간염 재활성화' 부분의 임상적 의견을 추가로 제출한 이번 연구는 세계 간질환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IF=33.0)에 게재됐다.



보건의료경영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입학미사거행

아시아 최초 '보건사목' 전공 신입생 6명 입학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이 지난 3월 17일(화),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미사를 거행했다.

미사에는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비롯해 교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한 약 250명이 참석했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바오로 주교가 미사를 집전했다.

이경상 주교는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며 학문에 매진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격려하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다가갈 어려운 일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사 후에는 임현우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의 인사와 지난 2025년 9월 아시아 최초로 개설된 '보건사목' 전공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소개는 보건사목 전공 책임교수인



김평만 신부(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가 맡아 진행했다. 김평만 신부는 "의료현장은 물론 본당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며 인간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전인적 돌봄을 실천할 전문가를 기를 수 있게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보건사목 전공은 천주교 본당과 지역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전인적 치유를 실천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의 협력하에 마련됐으며 5학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서울성모병원 주도, 국내 최대 암병리 AI 데이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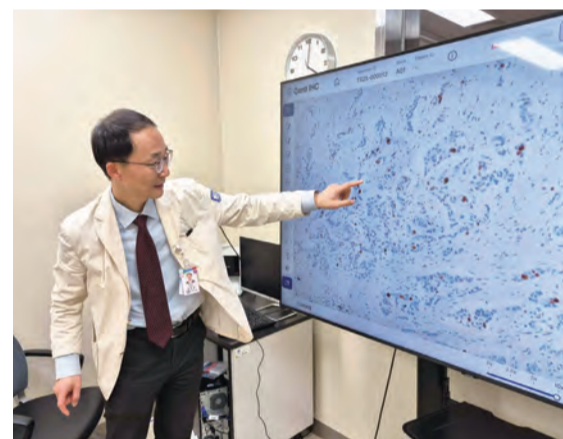
인공지능 디지털 병리 플랫폼, AI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병리와 정찬권 교수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참여 디지털 병리 인공지능 의료기술 연구사업단 코디파이(CODIPA)가 대규모 암 디지털 병리 데이터 구축과 참여 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당 사업은 16만 장 이상의 암 병리 전체 슬라이드 영상과 병리 단위의 정밀 어노테이션 데이터(병리 영상에서 암 조직, 정상 조직 등 각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고 표시한 데이터)를 구축해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병리 데이터 인프라를 완성했다. 본 사업에는 서울성모병원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병원과 어반데이터랩, 슈파스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사업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병리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 단계에 머물던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동시에 의료 AI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고품질 병리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병리 영상 분석 자동화, 정량 평가 기술, 임상 적용이 가능한 AI 솔루션 등이 개발됐으며, 일부 기업은 미국 테크스타즈 헬스케어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미국 최대 의료 네트워크 중 하나인 퍼머넌트 메디슨과의 협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은 사단법인 디지털병리협회의 설립 주축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병리 기술의 확산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바이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협력 사례를 확대하며 사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리브랜딩 캠페인 '간절한 마음으로' 전개

은평성모병원 개원 7주년, 수도권 서북부 최종 치료 병원 도약 박차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수도권 서북부 중증·응급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리브랜딩 광고 캠페인 '간절한 마음으로'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원 당시 선보였던 광고 캠페인 '오늘'에 이어, 환자를 향한 진심과 교직원의 사명을 담은 다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진의 간절한 마음, 신부님과 수녀님의 기도, 쾌유를 바라는 환자들의 바람을 광고 메시지로 풀어내며 은평성모병원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캠페인은 대표 이미지 광고 1종과 은평성모병원의 5대 집중 육성 분야를 담은 개별 광고 5종 등 총 6종으로 제작됐다. 5대 분야는 ▲심장혈관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혈액병원 ▲암센터 ▲응급의료센터로,

중증·응급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병원의 핵심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캠페인에는 은평성모병원 교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진정성을 높였다. 심장혈관흉부외과 강준규 교수, 간담체외과 박천수 교수, 혈액내과 이준엽 교수, 위장관외과 김동진 교수, 응급의학과 김수현 교수와 특수간호팀장 김해리 수녀 등 현장에서 진료와 간호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환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광고는 서울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를 비롯해 고양, 파주 지역 주요 옥외광고 매체에 집행된다. 주요 지하철 역사와 은평구 관내 전자게시대, 시내버스 외부



광고에 게재됐으며, GTX-A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도 송출되고 있다.



응급실 의사 최석재가 ‘습관’을 코딩하는 이유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최석재 진료전문의

응급실은 질병과 사고의 결과들이 모이는 곳이다. 최석재 진료전문의는 이곳에서 20년째 환자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병의 마지막 단계가 모이는 이곳에서 오히려 ‘시작점’을 이야기한다. 근본적으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습관과 일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유퀴즈, 책 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습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습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시를 공부하고 직접 코딩해 앱을 만들었다.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코딩하는 의사, 그가 바로 최석재 진료전문의다. 그의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다.



실천을 돕는 유기적인 장이 되도록 설계했다. 현재 해빛스쿨은 의사 최석재와 인간 최석재, 모두의 꿈이다.

설명하는 의사, '근본적인 치유'를 향한 고집

이러한 그의 행보는 “약이라는 건 합병증을 미루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그는 의사란 환자가 스스로 삶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응급실이라는 긴박한 환경에서도 그가 ‘설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의 철학은 ‘설명을 잘 하자’입니다. 응급 센터에서는 환자가 많으면 개별적으로 자주 보기 어려워지는데, 가능하면 시간이 닿는 대로 가서 증상은 어떤지, 검사 결과는 어떤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느냐가 10년 뒤의 내 몸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환자분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최석재 진료전문의는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게 의사의 모습이란 환자가 스스로 만성 대사 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든든한 보조자이다.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조절하는 것, 그걸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스스로 습관을 바꿔 약이 없어도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직접 치유할 수 있게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의 끝자락을 지키는 응급실 의사로서, 그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바를 환자들에게도 이야기했다. 건강을 잃고 난 뒤의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더 가치 있다는 것. 그는 환자들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바로 오늘부터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입이 달아서, 지금 몸 피곤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며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행복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습관의 중요성

그가 습관과 예방 의학에 관심을 둔 계기는 본인의 경험에 있다. 식사와 수면이 뒷전이었던 고단한 전공의 시절, 불규칙한 생활은 90kg에 육박하는 체중과 고지혈증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스스로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그는 기본 원칙인 ‘영양’과 ‘운동’에 주목했고, 한 달간의 채식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총 18kg을 감량하며 현재의 건강한 체형을 되찾았다. 본인이 직접 겪은 변화의 데이터가 있기에 그는 환자들에게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최석재 진료전문의가 해빛스쿨 앱을 설명하는 모습

“예방과 습관의 중요성이 나쁜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직접 코딩'에 뛰어든 이유

최석재 진료전문의는 최근 ‘바이브 코딩’ (AI에게 자연어로 명령해 마치 대화하듯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직접 코딩한 생활 습관 앱 ‘해빛스쿨’을 내놓았다. 3년 전 참여했던 ‘힐링 스쿨’ 합숙에서 단 2주 만에 환자들이 약을 끊는 모습을 목격한 뒤, 이를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결실을 본 것이다.

“처음에는 AI에게 코드를 짜달라고 부탁하며 만 자짜리로 시작했는데, 현장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어느새 500 메가바이트가 넘는 프로그램이 되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개발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의사인 제가 직접 코딩을 해보니, 원하는 기능을 앱에 즉각 반영할 수 있

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해빛스쿨이란?

최석재 진료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이 서비스는 단순한 건강 정보 기록, 전달을 넘어 동료들과의 인증과 응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플랫폼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앱에 기록하고 단톡방에서 함께 습관을 지켜나가는 유대감의 힘을 활용한다. 혼자서는 유지하기 힘든 식단, 운동, 마음 관리를 일상의 실천으로 정착시키는 건강 도우미다.

그가 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천’이다. 그는 그 해답을 그룹 활동에서 찾았다. 1년 전 학교 아버지회에서 운동을 시작한 그는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20대에도 못 했던 마라톤 기록을 40대에 달성하며, 타인과의 유대감이 개인의 의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빛스쿨 내 인증과 협력 기능을 강화해 앱이 서로의



삶을 기쁘게, 관계는 진심으로... 부르심에 따라 걷는 길

은평성모병원 적정진료관리팀 송은정 UM

병원 현장에서 전례 봉사과 업무의 균형을 맞추며 매 순간을 기쁨과 진심으로 채워가는 이가 있다. 은평성모병원 제 1회 영성실천상을 수상한 적정진료관리팀 송은정 UM이다. 본인은 그저 '부르심'에 따라 행했을 뿐이라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동료들에게 울림을 준다. 일 속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며 신앙의 가치를 나누는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적정진료관리팀에서 수가 및 평가Unit의 UM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전례부에서 해설 단장을 맡고 있으며, 원내 미사와 전례 안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해설 봉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성바오로병원 근무 시절, 수녀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라기보다 부르심에 가까운 시작이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선후배 봉사자들이 잘 봉사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설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많이 떨리는데 그럴 때 마다 불러 주셨으니 잘되게끔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올라갑니다. 제게 해설 봉사는 '앞에 서는 일'이라기보다 '함께 서는 일'입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다면? 근무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느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출근을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영성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매순간 선택의 기준을 '존중'에 두는 마음도 저를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두려움이 올 때면 "그러니 어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역대기 상권 22장 16절)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최근 은평성모병원 제1회 영성실천상을 수상하셨는데, 어떤 소감이신가요?

전례 봉사를 이어오며 작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영성을 실



천하도록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살았는데 상을 받는 것 같아 처음엔 상을 받아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특별한 활동 때문이라기보다 소임에 충실하고 신앙심을 잃지 않으려는 제 태도를 좋게 보아주신 감사와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으신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실까요?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성경 통독을 이어가며 여호수아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현재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니 단편적으로 알던 것과 사실은 달랐습니다. 피부병 환자 등을 격리하는 규정들이 예전에는 소외라고 생각했는데, 맥락을 보니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쉴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 이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제 삶에 어떤 이야기를

건네주실지 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한 분으로서, 또한 관리자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영성 실천 계획을 세울 때 구성원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업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몇 번 하자'가 아니라, 작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다, 그러니 진심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어. 진심이 통했는지 보통은 1분기에 미사 몇 번 참석하는 정도의 실천을 하는데, 이번에는 수 개월에 걸쳐서 실천해야 하는 '함께 성경 쓰기(은평의 함성)' 활동에 유닛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상반기 수료식에도 모두 함께 참석하게 됐는데, 신앙인으로서도 관리자로서도 매우 뿌듯한 경험이었습니.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제가 경험한 하느님은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 방송 같은 일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력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나를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정진료관리팀 황송이 팀장은 그녀를 '일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는 엘리트한 동료'라고 묘사했다. 적정진료관리팀 업무도, 다른 팀 업무도 모두가 힘들지만 송 UM은 TF 시절부터 업무를 완벽히 해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인은 주어진 뜻을 해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송 UM은 이미 부서원들에게 업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있었다.

우리가 걷는 길, 누군가에겐

2026년 CMC 핵심가치실천(수기/UCC) 및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월 CMC 직할기관 교직원 및 부서, 자선진료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CMC 핵심가치실천공모전' 당선작을 확정했다.

핵심가치실천공모전 심의위원회(위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공모된 139편 (핵심가치실천 수기 98, UCC 15, 자선진료 수혜자 수기 26)의 작품들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심의 회의를 갖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수상자명단



수기

- ▶ 대 상: 부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 정해진
- ▶ 우수상: 서울성모 세포치료운영 Unit 박예린 / 여의도성모 12층 Unit 김정희 / 부천성모 간호부 박미현 / 은평성모 연구지원팀 조현무, 장기이식병원운영팀(부서)
- ▶ 장려상: 서울성모 내과중환자실 Unit 정다현, 방사선종양학과 노시원, 응급중증전담 Unit 김보영, 152병동 장승남, 외래계간호팀(부서), 안센터운영팀 진료운영 Unit 김효신, 212 Unit 이승아 / 의정부성모 영성간호팀 최미혜 / 부천성모 수술실 B Unit 민옥준 / 은평성모 장기이식병원운영팀(부서), 간호행정교육팀 김채희, 약제부 조제팀(부서)
- ▶ 참가상: 80작품

UCC(동영상)

- ▶ 대 상: 서울성모 간호2팀(부서)
- ▶ 우수상: 서울성모 181 Unit(부서), 인공신장실(부서)
- ▶ 장려상: 여의도성모 영상의학팀(부서) / 부천성모 간호부 UM회(부서), 나 05병동(부서) / 은평성모 분만실 Unit(부서)
- ▶ 참가상: 8작품




자선활동의 수혜를 받은 기관명으로 표기

- ▶ 대 상: 여의도성모(1작품)
- ▶ 우수상: 의정부성모(2작품)
- ▶ 장려상: 서울성모(3작품), 여의도성모(1작품), 의정부성모(2작품)
- ▶ 참가상: 17작품



“계속 그렇게 웃어주세요!”

 부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 정해진



부천성모병원 앞 작은 골목 시장에서는 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인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웃음을 건네는 김영호 씨(가명)입니다. 병원 앞 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일거리와 배달 일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출퇴근길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교직원들에게 영호 씨는 병원 앞 시장의 풍경이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미소천사’입니다.

2024년 12월, 영호 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치아가 하나들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통증은 점점 심해져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는 길을 지나던 수녀님을 붙잡고 “여기 치과 치료비... 비싸요?”라는 짧은 한마디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영호씨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보육원에서 성장해 가정을 이루었고, 병원 앞 시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래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영호씨를 돌볼 여유를 잃어버렸습니

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결국 영호 씨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자리, 부천성모병원 앞 시장에서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호 씨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가족이 아닌 시장 이웃 주민들,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일상을 지켜본 병원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 내과와 치과 환자들을 상담하며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는 영호 씨를 담당하게 되었고, 치과 진료 예약을 돕고 동행했습니다. 영호 씨의 상태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그는 신체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치아 대부분은 썩어 흔들리고 있었으며 염증으로 잇몸은 이미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걱턱과 턱 비대칭을 동반한 3급 부정교합으로 근본적인 턱 수술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예상되는 치료비는 약 4,000만 원,** 담당 교수님조차 “평생 이렇게 심한 치아 부식 상태는 처음”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급여 치과 치료비 지원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치과 질환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웃는 것까지 빼앗아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문 제였습니다. **우리는 영호 씨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빛이 되다

자선활동 수혜자 수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일상과 업무 속에서 찾아낸 핵심가치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의 전 치료 과정을 함께해 온 정해진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병원 담당 너머 환자의 사회적 배경까지 돌보는 것이 진정한 핵심가치의 실천임을 보여준 그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Q1. 연고자가 없는 영호 씨를 돕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판단하기 어렵거나 고민됐던 지점은 무엇인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영호 씨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보호하느냐였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영호 씨에게 복잡한 의료 상황을 설명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자칫 제 판단이 영호 씨의 의사를 앞지르지 않을까를 경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벅찬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평소 영호 씨를 가족처럼 돌봐주신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과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덕분에 영호 씨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Q2. 영호 씨를 돕는 과정에서 병원 동료들과 가장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영호 씨의 치료비가 고액이었고, 특히 치과 질환은 위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 자원이 부족해 막막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부천성모병원 '호혜의 고리' 게시판을 통해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많은 교직원들이 영호 씨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서로의 마음이 깊이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1년이 넘는 긴 치료 과정 속에서 영호 씨가 끝까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해 준 의료진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Q3. 이번 일을 겪기 전과 후, 마음속에 정의하는 '전인치료'라는 단어의 무게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전인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신체적 치료



부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 정해진

를 넘어 환자의 삶과 관계, 사회적 배경까지 함께 돌보는 것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사업팀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에게 맞는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고 함께 책임지는 과정 자체가 전인치료에 동참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Q4. 핵심가치 실천을 막막하게 느끼는 동료 교직원들에게 이번 수상을 빌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쁜 업무 속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돌아볼 여유가 부족할 뿐입니다. 핵심가치 실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땐 주변 동료들과 가치와 실천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순간들을 통해 CMC의 가치 실천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영호 씨가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께서 매번 외래 진료를 동행해 주셨고, 치과 의료진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같은 설명을 짜증한 번 없이 반복하며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치과 치료를 시작으로 간질환, 심장질환도 발견되어 꾸준한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사업팀은 의료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치료 외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톨릭신문사와 연계해 영호 씨의 사연을 알리고, 부천성모병원 교직원들이 물건과 정보를 주고 받는 '호혜의 고리' 게시판을 통해 그를 알지도 모르는 교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퇴근길에서 저와 같이 그를 스쳤던 교직원들,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 영호 씨의 웃음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음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길에 매번 보던 분이네요." "항상 먼저 인사해주시던 분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등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약 650만 원, 신문사를 통한 모금 후원 4,000만 원, 총 4,650만 원의 치료비가 모였습니다.**

지금 영호 씨는 1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아래턱 이동 수술과 다수의 발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를 가진 그가 병원 밖에서도 홀로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치료의 범위를 치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던 관심과 돌봄, 위생 관리와 식사, 일상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도 연계했습니다. 또 주민센터 공무원과 협의해 필요한 물적 자원 등을 요청했고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연결이 아니라, 영호 씨의 삶 전체를 바라본 선택**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삶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졌고,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치료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통증이 줄어들면서 영호 씨는 다시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 나오는 날 아침이면 병원 1층 커피숍에서 기다렸다 "커피 사다 줄까?"하며 서툴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부천성모병원 교직원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최우선에 두고 진료과와 부서의 경계를 넘어 협력했으며,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가족처럼 품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선의와 도움의 손길이 존재하는데 아프고 가난한 이웃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호 씨와 같은 이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는 **누군가의 밝은 웃음과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다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존엄한 삶의 회복을 향한 이 길을 부천성모병원 교직원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닥터의 진료현장

무릎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박도준 교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알고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찢릿하거나, 아침에 일어나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럴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런 변화는 무릎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은 두 개 이상의 뼈가 만나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중 무릎은 허벅지뼈, 정강이뼈, 무릎뼈 세 개가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바쁜 관절입니다. 뼈가 서로 부딪혀 닿지 않도록 관절 표면은 연골이라는 보호층이 덮여 있고, 사용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보호층이 점차 닳습니다. 그 결과 아래 뼈가 자극을 받으며 통증과 변형이 나타나는데, 이를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생겼을까: 위험요인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50대 이후부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체중 증가, 비만은 무릎 하중을 키워 관절 마모를 가속화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습관, 과거의 스포츠 손상이나 사고 경험 역시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및 체성분 변화로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반복된다면 초기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무릎 통증

- ▶ 아침에 일어날 때의 관절 뻣뻣함
 - ▶ 무릎 부종 또는 움직일 때 나는 소리
 - ▶ 활동 후 더 심해지는 통증
-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 진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
무릎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바로 정밀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먼저 환자가 느끼는 통증 양상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자세히 듣고, 진찰을 통해 붓기와 압통을 확인합니다. 이후 X-ray 검사로 뼈의 정렬과 관절 간격을 평가합니다. 많은 경우 X-ray만으로도 관절염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연골이나 인대 손상이 추가로 의심될 때만 MRI를 선택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술 없이 좋아지는 핵심 전략
치료의 목표는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초기와 중등도 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오늘부터 실천하는 3가지》**
- ❶ **체중 관리**: 체중이 줄면 무릎 부담도 즉각 감소합니다. 현실적인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 ❷ **허벅지 근력 강화**: 허벅지 근육은 무릎의 '보조 지지대'입니다. 근력이 좋아질수록 관절 부담이 줄어듭니다.
 - ❸ **저충격 운동**: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은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또한 좌식 생활이나 쪼그려 앉기,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로 힘을 주는 동작은 피하고, 증상이 있을 땐 활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주사 치료와 수술, 언제 고려할까
주사 치료는 통증과 염증 조절을 보조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 완화,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윤활, PRN 주사는 조직 회복이 목적입니다. 다만 주사는 관절염 자체를 되돌리는 치료는 아니므로 상태에 맞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수술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

술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환자는 체중 관리와 운동, 약물 치료만으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리 정렬 이상으로 하중이 집중된 경우에는 절골술을, 통증으로 보행과 일상이 뚜렷하게 제한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검토합니다. 수술 여부는 영상 소견만이 아니라 환자의 통증 정도와 기능 제한 수준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무릎 치료, 꼭 수술로 이어질까요?
외래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결국 수술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먼저 봅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특성상 타 의료기관에서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만난 어르신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통증과 수술에 대한 불안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진찰 후 어르신의 무릎을 두고 “그동안 삶을 동행해 준 고마운 무릎”이라 말씀드렸고, 그 한마디에 환자분의 표정이 환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단계여서 체중 관리와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부터 시작했고, 이후 다시 뵈신 어르신은 “계단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며 웃으셨습니다. 무릎 치료는 삶의 질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포기할 병이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관리해 가는 질환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무릎은 결코 ‘나쁜 무릎’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긴 세월을 버티며 애써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친구입니다.”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박도준 교수



진료 분야 슬관절질환, 골다공증, 통풍(무릎), 관절경수술(무릎), 로봇수술(무릎)
진료 시간 [오전 금 [오후] 월, 수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2026.04.15.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은평성모병원, 신부님 수녀님과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신수밥상' 재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원목팀이 주관하는 교직원 소통 프로그램 '신수밥상'이 다시 시작됐다. 신수밥상은 '하느님이 손수 준비하신 밥상', '신부님과 수녀님이 함께하는 밥상'이라는 의미로, 원목팀이 교직원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교직원 돌봄 프로그램이다. 신부님과 수녀님이 교직원의 고민과 바람을 경청하고 서로 공감하며 친교의 시간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된다. 신수밥상은 2019년 은평성모병원 개원과 함께 교직원 간 소통을 위해 시작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2026년 상반기 신수밥상은 신청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500례 달성

전체 생체 신장이식 중 35%, 이식 후
경과 일반 생체신장이식에 뒤지지 않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은 2026년 2월,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는 65세 남성 환자(B형)에게 배우자(AB형)로부터 신장을 이식하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혈관이식외과 박순철 교수, 주

치의 신장내과 정병하 교수) 500례를 달성했다.

과거에는 혈액형이 맞지 않는 공여자로 부터의 신장이식은 거부반응 위험으로 시행이 어려웠으나 탈감작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최근 의료진이 모여 환자의 퇴원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환자는 “이 자리를 빌려 치료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성모병원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2009년 5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처음 성공한 이후 6년 만에 100례를 달성했다. 이후 시행 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2018년 200례, 2021년 300례, 2023년 2월 400례에 이어 2026년 2월 500례를 달성했다. 첫 시행 이후 16년 9개월 만의 성과다. 또한 여러 고난도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신장이식 분야를 선도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과 전문 코디네이터팀의 유기적인 협력 덕분이다. 병원은 관련 분야 SCI급 논문 11편을 발표하는 등 학술적 역량을 입증했으며, 베트남 의료진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현지 첫 혈액형 부적합 이식 성공에도 기여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이식 분야를 선도하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MFICU, 고위험 임산부 위한 ‘24시간 의료 안전망’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시설·인력
완비, 고위험 분만 안전 거점 역할 수행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이하 MFICU)가 경기북부 지역의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인 운영 궤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

MFICU(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는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임신중독증 등의 합병증을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모니터링하는 특수 병동이다. 특히 개소 후 14일의 기간 동안 총 11명의 고위험 산모가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퇴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정부성모병원 MFICU는 고위험 산모의 분만을 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강력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부인과 교수진을 필두로 한 전담 의료진은 24시간 밀착 대응 체계를 가동, 태아 가사나 조기 진통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센터 운영의 핵심은 지역 내 중증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센터 내에는 최첨단 태아 감시 장비와 집중 치료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초단위로 체크하며 합병증 예방 및 처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이태규 병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분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위험 임산부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앞으로도 완벽한 시설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생명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천성모병원 복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EVAR) 100례 돌파

아인슈타인 사망 원인인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최적의 치료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복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EVAR) 100례를 돌파했다. 이는 고난도 혈관질환 치료 분야에서 축적해 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중증 혈관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은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혈관내 수술법이다. 대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동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 Graft)를 위치시켜 혈류를 새로운 통로로 우회시킴으로써 파열 위험을 낮춘다. 복부를 절개하는 기존 개복수술과 달리 최소 침습적으로 시행돼 회복이 빠르고, 고령 및 고위험 환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복부 대동맥류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파열 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질환의 위험성이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현재는 복부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혈관내 시술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부천성모병원에서는 혈관이식외과와 영상의학과가 협진으로 환자 평가부터 시술 계획 수립,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추적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혈관이식



외과 전강웅 교수와 영상의학과 김일중 교수가 집도 전문의로 참여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은 이번 100례 돌파를 계기로 지역 내 중증 혈관질환 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대학

2025학년도 동계 홍콩대학교 국제교류 연수 실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과 홍콩대학교 간 2025학년도 동계 국제교류 연수가 최근 진행됐다. 학생 8명이 참여했으며, 정지혜 교육전담초빙교수의 인솔 아래 4박 5일간의 견학, 강의 및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강의, 실습, 지역사회 방문, 문화 탐방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참가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제고와 글로벌 보건으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성모병원

서소문성지서 소장 미술품 특별전



서울성모병원이 소장 미술품 66점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 기탁하며, 이를 기념하는 특별기획전 '위로와 치유의 공명'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병원 내에서 환우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해온 박득순, 김춘옥, 천기원 등 저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공공 문화 자산으로 전환해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병원은 이번 기탁 업무협약을 통해 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소장품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의도성모병원

'퇴원환자 통합돌봄사업' 협약



여의도성모병원과 영등포구청은 최근 '퇴원환자 통합돌봄사업' 협약을 체결,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퇴원 후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다. 병원과 구청은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취지에 맞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성모병원

도쿄과학대학병원과 MOU, '글로벌 외상센터' 도약



의정부성모병원이 일본 도쿄과학대학병원과 '국제연수 및 학술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진 단기 임상연수 운영 ▲교수진 상호 방문 및 참관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외상 및 응급의학 분야 협력 연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태규 병원장은 "외상·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부천성모병원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도입했다. 간호사가 음성으로 실시간 기록을 작성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졌으며, 98% 이상의 정확도와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정밀한 기록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 식별과 투약 확인에도 활용되어 의료 오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기록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간호와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은평성모병원

최신 로봇수술기 '다빈치 SP' 도입, 총 3대 운용 체제 구축



은평성모병원이 4세대 최신 로봇수술기 '다빈치 SP'를 도입하며 축복식을 가졌다. 이로써 기존의 다빈치 Xi 2대에 더해, 총 3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용해 고난도 정밀 로봇수술 역량을 강화했다. 다빈치 SP는 하나의 작은 절개창만으로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최신 단일공 로봇수술기로,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통증과 회복기간을 줄여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로봇수술센터장 이용성 교수는 "단일공 로봇수술을 포함한 고난도 정밀 수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로봇수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성모병원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매우 우수... '소방청장 표창'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인천부평소방서 주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로 평가돼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해당 평가는 재난 및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과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평가다. 인천성모병원은 재난 대응 교육 이수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응급의료 대응 체계와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50명 배출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문화 확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제2회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인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고, 총 5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은 향후 호스피스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바다의 별 축제' 수익금 330만 원 전달받아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천주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이 '제32회 바다의 별 축제'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330만 원을 전달받았다. '바다의 별 축제'는 가톨릭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돼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신앙 안에서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한국간호과학회 제30대 상임위원회 학술위원장 선출



간호대학 이선희 교수가 한국간호과학회 제30대 상임위원회 학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간호과학회는 국내 간호학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간호학 연구 진흥과 학문적 발전, 학술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임상간호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연구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창간호 발간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전문전담운영팀이 팀 신설 이후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소식지 '전문전담간호사 진료와 간호 사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 2026년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는 김혜경 간호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격려를 담은 '울림', 팀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동행'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됐다. 환자 치유를 위해 헌신해 온 전문전담간호사들의 발자취를 집약한 이번 소식지는 병원 내 전문 간호 서비스의 위상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2호 'ESSD 공인 FEES 자격' 취득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지수 전문의가 국내 두 번째로 유럽연합장애학회(ESSD)로부터 내시경적 연하검사(FEES) 공인 자격을 취득했다. ESSD FEES 자격은 국제 표준 연하장애 진단 프로토콜 숙지, 이론 교육 및 워크숍 이수, 다수의 임상 증례 제출, 학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과해야 부여되며, 아시아 최초 ESSD Instructor인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의 지도 아래 1년간 국내 집중 연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4,000례 달성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팀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4,000례를 달성했다. 이는 개원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환자 맞춤형 치료와 다학제 협진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축적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고인준 교수는 "환자 개개인의 무릎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술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체계적인 수술 전·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령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CMC 의료인으로 첫걸음

2026학년도 비전과 미션 선포식 개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3월 12일(목)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의 비전과 미션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가톨릭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갖춘 의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련한 공동체 교육인 '비전과 미션'이라는 교과목의 마무리 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4일간의 교육 과정 동안 스스로 성찰하며 의사로서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비전과 미션을 정립해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나눔 ▲비전 선포 ▲타임캡슐 봉헌식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동건 가톨릭대 의과대학장, 김평만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을 비롯해 2026학년도에 입학한 가톨릭대 의예과 1학년 학생 98명이 참석해 CMC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미래의 다짐을 나눴다.

선포식은 의예과 2학년 선배들이 직접 제작한 키링과 초를 전달받은 신입생들이 무대에 오르며 시작됐다. 이후 김평만 신부의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나눔, 학생 개별 비전 선포, 타임캡슐 봉헌식이 이어졌으며, 나규원 의예과 1학년 대표 학생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낭독 후 학생들이 무대 아



래로 내려와 CMC 의료인으로서의 변화하는 여정을 다짐하는 예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동건 의과대학장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비전을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잘 지켜 나가길 바라며, 동료들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료인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라며 새롭게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간호 대학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세미나 개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간호대학 이예림 부교수(가족건강간호학과)가 담당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8개 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호스피스 관련 학회 및 협회, 호스피스간호사회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실행 전략 모색으로, 참석자들은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적 보완 과제와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학년도 동계 일본성마리아대학교 국제교류 연수 실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과 일본성마리아대학교의 2025년 동계 국제교류 연수가 1월 12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는 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간호대학 이향열 부교수(간호시스템학과)가 지도 및 인솔을 맡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본성마리아대학교와의 국제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전공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했다. 학생들은 강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고, 현지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운영 체계를 직접 견학·참관하며 교육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보건의료 체계와 간호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 관련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나아가 문화체험 활동도 병행해 학생들이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체감하고 글로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동계 국제교류 연수는 해외 보건의료 교육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교 간 협력을 더 공고히 했다.

성빈 센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이 최근 암병원 1층에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병원 발전과 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기부자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암병원 1층 복도 벽면에 설치된 대형 현판에는 고액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별도로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소액기부자 명단도 상시 표출된다. 이는 기부 규모와 관계없이 병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막식에는 성빈센터 드블 자비의 수녀회 총원장 문화연 마리아 가브리엘라 수녀와 병원장 임정수 쿨베 수녀를 비롯해 주요 보직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제막 행사에 이어 병원 원목팀 이형완 가브리엘 신부의 집전으로 축복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명예의 전당이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나눔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징적 장소가 되기를 기원했다.

대전 성모

옥천군과 퇴원환자 지원 업무협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옥천군과 퇴원환자 재가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65세 이상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전성모병원은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연계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환자 평가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주소지 관할 지자체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관리, 계획 등의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옥천군은 이를 바탕으로 방문진료, 방문간호, 일상생활 돌봄, 주거·긴급돌봄 등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된다.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500례 달성

혈액형의 벽을 넘은 500번의 생명 릴레이, 대한민국 신장이식의 역사를 잇다
 생존율 98%의 안정적인 예후로 장기이식 분야 선도



"어내는 물론 두 딸까지 모두 기꺼이 나설 준비"... 온 가족의 헌신이 일군 500번째 결실

지난 2월, 서울성모병원 병실에서는 500번째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따뜻한 축하 자리가 마련됐다. 말기신부전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 온 65세 환자(B형)는 배우자(AB형)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이 성공적인 이식 뒤에는 온 가족의 헌신이 있었다. 환자의 둘째 딸은 "평소 자상했던 아버지의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물론, 이미 결혼한 언니와 저까지 모두 기꺼이 이식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가족 모두가 공여자를 자처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남편에게 내 신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아내의 결단으로 최종 이식이 이뤄졌다.

서울성모병원의 고도화된 혈액형 부적합 이식 기술은 이처럼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전체 500례 중 절반 이상이 부부간 이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가정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이다.

'1969년 국내 최초' 역사가 증명하는 탄탄한 기술력과 긴밀한 다학제 협진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신장이식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969년 명동성모병원 시절 국내 최초로 신장이식에 성공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와 도전으로 이식 분야를 개척해 왔다.

과거에는 혈액형이 다르면 거부반응 위험으로 이식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서울성모병원은 혈액형 연관 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탈감작 치료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켰다. 2009년 첫 성공 이후 16년 9개월 만에 500례를 돌파한 배경에는 혈관이식외과, 신장내과,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장기이식센터 전문 코디네이터팀이 긴밀하게 호흡을 맞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 역량은 학술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관련 분야에서 11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며 의학적 우수성을 입증했고, 베트남 의료진에게 화상회의로 노하우를 전수해 베트남 최초의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 성공을 이끄는 등 국제적인 역량도 인정받고 있다.

일반 이식과 대등한 생존율 98%... 고위험군에도 안전한 이식의 문을 열다

치료의 우수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한다. 500례 분석 결과, 이식 후 이식 신장이 기능하며 생존하는 비율은 1년 98%, 5년 94%, 10년 85%로 일반 생체 신장이식과 대등한 우수한 예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증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성모병원 전체 생체 신장이식의 35%가 혈액형 부적합 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환자(최고령 73세), 고도 감각과 혈액형 부적합이 동반된 고위험군(17%), 3차 재이식 및 신장간 동시 이식 등 고난도 케이스까지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이식의 적응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교수(혈관이식외과)는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의 도입으로 과거 공여자가 없어 이식을 포기해야 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선택지가 열렸다. 필수 약제와 검사법의 발전에 발맞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sungmo.or.kr

간질환 간이식



간담체외과
김재윤 교수

[오전] 목
[오후] 수, 금



유방암 유방질환



유방외과
강종원 교수

[오전]
[오후] 월, 수, 금



성장장애 성조숙증



소아청소년과
박수진 교수

[오전] 월, 수
[오후] 목, 금



발열 감염성질환



소아청소년과
문혜정 교수

[오전] 수, 목
[오후] 월, 화



염증성장질환 대장암



소화기내과
김원중 교수

[오전] 월, 금
[오후] 목



다발골수종 림프종



림프종센터
김가영 교수

[오전] 월, 목
[오후] 화, 수



호스피스 완화의학



가정의학과
김지흥 교수

[오전]
[오후] 월, 목



분야별
'젊은' 명의가
더해져

진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026 신규 의료진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ujb.or.kr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

민락동 성당서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 특강 성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영성간호부는 13일 의정부 민락동 성당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기 북부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영성간호부장 김영희 수녀를 비롯한 전문 간호사와 교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특강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영선 간호사가 '생의 시작'을 주제로 가톨릭 생명윤리와 나프로임신센터를 소개했으며, 박지은 간호사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했다. 이어 신영서 간호사가 존엄한 생의 말기를 돕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현미 선임이 '호스피스의 의미와 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및 경제적 지원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 이후에는 약 1시간 가량 실질적인 건강 상담과 지원 활동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무료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호스피스 및 가정간호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았으며, 희망자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민락동 성당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 북부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생명 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지 보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EVAR) 100례 돌파

혈관이식외과-영상의학과와 인터벤션 협진으로 최소침습 혈관치료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삽입술(EVAR)?

복부 대동맥류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관내 시술로,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 뒤 동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스텐트 그라프트 [stent graft]를 위치시켜 혈류가 동맥류로 직접 흐르지 않도록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파열 위험을 낮추는 전 세계 표준 치료법입니다.

- ✔ 복부 절개 없이 시행하는 최소침습 혈관내 시술
- ✔ 출혈과 통증 부담 감소
- ✔ 고령 및 고위험 환자에서도 적용 가능
- ✔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 단축
- ✔ 정밀 영상 기반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가능



혈관이식외과 **전강웅** 교수
 [오전] 월, 목



영상의학과 **김일중** 교수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은평성모병원 분만 5,000례 수도권 서북부 ✕ 출산 대표 병원



분만 5,000례 달성 기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EUNPYEONG ST. MARY'S HOSPITAL

고위험군 출산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진과 인프라 확보



신생아 중환자실

✔ 고위험산모·신생아집중치료센터

→ 다학제 협진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 고위험 출산 인프라

→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 나프로임신센터

→ 자연 임신과 건강한 출산까지 주기별 맞춤 진료 제공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한 훌륭한 모자의료 안전망 구축